“ANOC 서울 총회 성공 개최 논의”

대한체육회, 오늘까지 OCA 자문위원회 회의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3~4일 서울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OCA 자문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소속된 분과위원회로, 이번 회의에는 세르미앙 응 IOC 부위원장과 대한민국 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11명(온라인 포함)이 참석한다.

회의 기간에는 10월 열리는 제26차 서울 ANO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는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OCA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4일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통일전망대, 고성DMZ 박물관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가오는 ANOC 서울 총회와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침체되었던 스포츠계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올림픽 정신 및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호주·뉴질랜드, 항저우 AG 불참할 듯

호주와 뉴질랜드가 9월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불참을 선언할 전망이다. 3일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아시안게임 불참 결정을 표명할 예정이다. 당초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5개 종목에 선수 300명과 스태프 150명 규모의 선수단을 이번 아시안게임에 파견할 계획이었다. 호주는 2017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아시아무대에 데뷔했고, 하계아시안게임에선 이번에 처음 출전하려고 했다.

권순우, 마드리드오픈 단식 1회전서 패배

권순우(당진시청·세계랭킹 73위)가 3일(한국시간)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오픈 본선 단식 1회전에서 캐머런 노리(영국·11위)에 세트스코어 0-2(5-7 5-7)로 패했다. 마드리드오픈은 1년에 9차례 열리는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의 하나로, 4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이다. 권순우는 그동안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5차례 본선에 나섰으나 한 번도 1회전을 통과하지 못했다. 메이저대회에선 4차례 2회전에 올랐고,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선 3회전까지 진출했다. 권순우는 8일 로마에서 개막하는 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서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 본선 첫 승에 다시 도전한다.

27~29일 1세션 시작…내년 1월까지 총 8세션 진행

홀덤 시장 진출 선언한 허리우드, WPC 연다

〈월드포커챔피언십〉

프로리그 창설 위한 선수선발 일환
메인이벤트·하이롤러·몬스터트랙 3개 부문서 전국 포커 챔피언 뽑아
안정적 운영 위해 50억 지원 계획도



당구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허리우드가 WPC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홀덤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지난 4월 홀덤전용경기장(IBSS)에서 열린 ‘APL X KMGM 포커 챔피언십’.

최근 마인드스포츠 홀덤 시장 진출을 선언한 당구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허리우드가 WPC(월드포커챔피언십)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허리우드 스포츠사업부문 김석주 부문장은 3일, “홀덤 프로리그 창설 준비와 맞물려 우수 프로홀덤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첫 대회로 WPC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홀덤전용경기장(IBSS)에서 펼쳐지는 허리우드 주최 WPC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1세션을 시작으로 내년 1월 6~8일 진행되는 마지막 8세션까지 총 8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메인이벤트, 하이롤러, 몬스터트랙 등 3개 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모여든 포커 고수들의 챔피언을 뽑는다. 이번 대회는 운영사무국이 지정한 홀덤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공식토너먼트대회 우승자들에게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WPC 출전 티켓 획득 방법은 추후에 공식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 부문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에게는 대회 상금은 물론 홀덤 프로리그 참가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리우드는 한국 대표 당구용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1980년대부터 당구대 제작을 시작해 일찌감치 대한민국 최고의 당구대 생산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당구 산업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스포츠서비스업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든든한 제조업의 밑바탕에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했다.

마인드 스포츠 홀덤은 고도의 심리 게임으로 2028년 LA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PC게임이 e스포츠로 스포츠화 되고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듯, 국내에서도 홀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스포츠화와 대중화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홀덤펍들이 많이 생겨나 건전한 홀덤 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당구용품 제조업체인 허리우드가 최근 프로홀덤협회(PHA)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홀덤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허리우드는 앞으로 PHA를 통해 건전한 홀덤 문화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대회 개최 및 운영과 함께 선수, 심판(딜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WPC 주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허리우드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홀덤프로리그를 출범시키고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복식 여제’ 유한나, 포스코 원년 챔프 이끄나

〈한국프로탁구리그〉

양하은·김나영과 짝 이룬 복식서
왼손잡이 이점 살려 8승무패 압도
전혜경 감독 “까다로운 유형 강점”



새로운 ‘복식여제’의 탄생이다. 포스코에너지 유한나는 고졸 2년차인 올해 한국프로탁구리그 코리아리그 복식에서 8승무패를 달리며 최강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팀의 리그 원년 챔피언 등극에 앞장서는 그는 신유빈, 김나영과 함께 한국탁구의 미래로 평가받는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탁구리그

‘승률 100% 보장!’ 다소 비현실적인 이 문구는 종목을 막론하고 묘한 매력과 위압감을 선사한다. 숱한 변수 속에서 팀당 14~18경기, 매 경기 4단식·1복식의 치열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한국프로탁구리그(KTTL)에선 이 문구의 임팩트가 크게 다가온다.

‘복식 최강자’로 부상한 유한나(20·포스코에너지)의 활약에 탁구계는 ‘복식여제’가 등장했다며 반기고 있다. 그는 KTTL 코리아리그 여자부 정규시즌에서 2위 삼성생명과 승점 3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속팀의 원년 챔피언 등극을 위한 키플레이어로 지목받고 있다.

3일 현재 유한나는 양하은(28), 김나영(17)과 함께 짝을 이룬 복식 경기에서 8승무패로 압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복식 경쟁자인 김지호(23·삼성생명)와 강다연(23·대한항공)이 각각 6승4패, 4승3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왼손잡이의 특수성을 앞세워 유한나는 오른손잡이 양하은, 김나영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주니어국가대표 시절에도 신유빈(18·대한항공)의 복식 파트너로 맹활약했다. 코스 공략 측면에서 오른손잡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포어핸드 드라이브의 위력이 남자 못지않아 복식 강자로서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혜경 포스코에너지 감독도 “(유)한나는 서브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질이 다양해 상대가 까다로워할 유형”이라며 “최대 4경기를 치를 포스트시즌에서 시즌의 성패가 갈린다. 단식 에이스를 정하는 게 관건이나, 복식에서 한나를 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제 유한나가 마주한 최종 관문은 ‘단식 정복’이다. 올 시즌 KTTL 단식에선 승리 없이 1패만을 기록 중이고,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9명 중 7위(4승6패)에 머물며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보완점을 파악한 만큼 단식의 벽 앞에 굴하지 않고 완전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전 감독은 “단식은 선수에게 요구되는 움직임과 운영능력이 복식보다 더 많다. 지구전에서 백핸드 컨트롤이 무뎌져 이 점을 훈련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주요 국제대회에서 복식 비중이 높다. 신유빈, 김나영, 유한나의 성장 여부에 한국탁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SSG	26	19	6	1	0.760	-	1패	0.236	2.85	0.833	113	77	14	12	15
2	롯 데	25	15	9	1	0.625	3.5	4승	0.266	2.88	0.455	102	86	16	8	21
3	키 움	26	15	11	0	0.577	4.5	2승	0.233	3.09	0.500	97	94	18	18	18
4	두 산	25	14	11	0	0.560	5.0	1승	0.246	3.32	0.500	99	97	9	27	26
5	LG	26	14	12	0	0.538	5.5	3패	0.243	3.31	0.250	105	93	14	20	16
6	KT	25	11	14	0	0.440	8.0	2패	0.244	3.62	0.385	94	101	16	19	19
7	삼 성	26	11	15	0	0.423	8.5	3승	0.246	3.65	0.333	111	116	11	21	27
8	KIA	25	10	15	0	0.400	9.0	5패	0.260	3.51	0.385	106	106	12	7	30
9	한 화	26	10	16	0	0.385	9.5	2승	0.224	3.88	0.500	87	114	12	28	33
10	NC	26	8	18	0	0.308	11.5	2패	0.227	4.06	0.357	86	116	10	13	23

메이저리그 〈3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Y	17	6	1	미네소타	14	9	1	LAA	15	9
2	토론토	15	9	2	클리블랜드	10	12	2	휴스턴	12	11
3	탬파베이	13	10	3	시카고W	9	13	2	시애틀	12	11
4	보스턴	9	14	4	디트로이트	7	14	4	오클랜드	10	13
5	볼티모어	8	15	4	캔자스시티	7	14	5	텍사스	8	14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16	8	1	밀워키	15	8	1	LAD	14	7
2	마이애미	12	10	2	St.루이스	13	9	2	샌디에이고	15	8
3	필라델피아	11	12	3	피츠버그	9	13	3	샌프란시스코	14	8
4	애틀랜타	11	13	3	시카고C	9	13	4	콜로라도	13	9
5	워싱턴	8	16	5	신시내티	3	19	5	애리조나	11	13

•경기결과

시카고W	3 - 0	LAA	애틀랜타	5 - 2	뉴욕M
St.루이스	1 - 0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2 - 1	볼티모어
휴스턴	3 - 0	시애틀	탬파베이	6 - 1	오클랜드
뉴욕Y	3 - 2	토론토	애리조나	5 - 4	마이애미

퓨처스리그 〈3일〉

•경기결과

LG	11 - 12	고양	상무	14 - 0	KT
삼성	5 - 9	NC	롯데	1 - 7	두산

해외축구 〈3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맨체스터Utd.	3	0	브렌트포드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헤타페	0	0	베티스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묀헨글라트바흐	3 - 1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2 - 0	프랑크푸르트

•세리에A 경기결과

아탈란타	1 - 1	살레르니타나	

NBA 〈3일〉

•경기결과

마이애미	106 - 92	필라델피아	피닉스	121 - 114	댈러스

경기예고

프로야구 〈4일〉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	〈인천〉	SSG (-)	롯데 (-)	〈수원〉	KT (-)
오후6시30분, SPOTV			오후6시30분, SBS SPORTS		
NC (-)	〈대구〉	삼성 (-)	두산 (-)	〈잠실〉	LG (-)
오후6시30분, KBS N SPORTS			오후6시30분, SPOTV2		
키움 (-)	〈광주〉	KIA (-)			
오후6시30분, MBC SPORTS+					

프로농구 〈4일〉

•2021-2022 KGC 정관장 남자프로농구 〈챔프 2차전〉

SK	〈잠실학생〉	인삼공사
오후7시		

아마추어 경기 〈4일〉

쇼트트랙 ●2022-2023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9시40분·태릉실내빙상장)

씨름 ●위더스제약 괴산장사대회(10시·괴산문화체육센터)

육상 ●전국실업대회(9시·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유도 ●제13회 청풍기전국대회(9시·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농구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대회(9시·울산문수체육관, 울산오토밸리체육관, 울산대현체육관)

테니스 ●제52회 회장배전국여자대회(양구테니스파크)

오늘의 토토 〈4일〉

•농구토토 매치 37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5.04 (수) 19:00	서울SK	vs	안양KGC	잠실학생체육관